

발 간 등 록 번 호

12-1371827-000001-01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0 도서관정책포럼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일시 2020년 9월 4일(금) 14:00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0 도서관정책포럼

개 요

- 일 시 2020. 9. 4.(금). 14:00 ~ 16:30
- 장 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 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 주최·주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립중앙도서관 · 한국도서관협회
- 후 원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세부일정

사회: 박주옥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40~14:00	20' 로그인	국립중앙도서관 유튜브 중계 (별도 신청없이 참여)
14:00~14:05	5' 개회사 및 인사말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14:05~14:35	30' [기조강연]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 글로벌·디지털 시대 '살아 있는' 지식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4:35~15:05	30' [주제발표] 현재가 된 미래, 도서관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15:05~15:15	10' 휴 식	
15:15~16:00	45' [토론] - 공공: 이진우(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 학교: 이덕주(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 대학: 정재영(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부장) - 전문(의학): 이은주(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 과장,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이사) ※ 관종별 도서관의 코로나 경험, 도서관서비스, 미래도서관에 대한 토론	* 좌장: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
16:00~16:30	30' 질의응답 및 폐회	

※ 세부사항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목차

인사말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1

-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 글로벌·디지털 시대 ‘살아 있는’ 지식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5
-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주제발표

현재가 된 미래, 도서관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19

-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 공공도서관 】 도전과 혁신, 지금부터 시작하자 39

-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 학교도서관 】 현재가 된 미래, 학교도서관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 또 중앙정부나 국립기관의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47

- 이덕주 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 대학도서관 】 코로나 이후, 대학도서관의 변화 55

- 정재영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부장

【 전문도서관(의학) 】 코로나19, 의학도서관의 변화와 도전 61

- 이은주 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 과장,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이사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신기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2020년도 도서관정책포럼”의 개최를 알릴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또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이번 포럼을 개최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도서관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셔서 경청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어야 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존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익숙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마주 앉아 대화하며 얻는 기쁨이 줄어든 대신, 화면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거대한 변화에 맞서 처음에는 어떻게 도서관이 대응해야 할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도서관들이 문을 닫고 이용자들과 잠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조용히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채 책을 빌릴 수 있는 ‘북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많은 도서관이 실시하였고, 전자책 대출 한도를 늘려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도서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약 39억원을 편성하였고, 전 국민이 전자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책 씬터’를 개설하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우울함을 독서로 해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전자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등교를 하지 못하는 중에도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도서관들은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지난 3월 말 미국 공공도서관협회 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도서관의 (2,545개관)의 98%가 휴관중이며, 전자책 구매예산 확보와 온라인 스트리밍 미디어 확충 등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저작물의 사용에 걸려있던 제한들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고, 학술정보의 오픈엑세스(Open access)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는 모습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서관은, 어쩌면 패러다임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에 맞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럼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을 주제로, 전 세계 도서관계에서 이어지는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명한 문화인류학자이신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님의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글로컬·디지털 시대 ‘살아 있는’ 지식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이라는 표제의 기조강연을 필두로,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님의 ‘현재가 된 미래, 도서관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가 이어지고, 공공·학교·대학·전문도서관 등 도서관 현장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신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이 포럼을 풍성하게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늘 시민의 곁을 지켜왔던 우리 도서관이 또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포럼에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이 두루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
조
강
연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 글로벌·디지털 시대 ‘살아 있는’ 지식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 글로컬 · 디지털 시대 '살아 있는' 지식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 근대와 도서관

근대형성기에 학교와 도서관은 근대 교양 시민들을 키워내는 핵심적 장소였다. 학교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근대적 노동자와 시민들을 키워냈다. 동시에 학교는 또래와 선후배, 그리고 교사들이 비공식적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창의적인 활동을 나누는 곳이기도 했다. 학교 근처에 있는 도서관은 그런 학교를 거친 이들이 자발적으로 찾는 탐구의 장소였다. 책들이 많이 쌓인 지식과 지혜의 장소이자 오래 존재함으로 물려줄 지식과 지혜를 아카이빙하는 곳이었다. 또한 학습이 딱 짜여있는 학교와는 달리 개인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 탐구하는 자발적 학습의 장이었다. 그런 면에서 배움의 기쁨을 아는 시민들, 정보를 구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의적 공유지의 전형이었다. 이 정도가 도서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본 적이 없는 내가 가진 도서관의 이미지다. 위키 백과를 찾아보니

도서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다.

도서관(圖書館, 약칭: 도관, 영어: library)은 책, 잡지, 영상 매체, 마이크로필름 등의 다양한 정보를 공공 기관, 단체나 개인이 수집·정리하여 민간 또는 특정 사용자들이 열람, 대출 등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자 사회의 문화 및 정보 중심지이다. 도서를 비롯한 각종 정보 자료를 수집, 정리 및 보존함으로써 교육 체계와 정보의 축적, 검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독서, 조사,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에 있는 매체를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지식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교육·업무·여가 선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서관의 종류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 도서관, 지역 사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대학 도서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도서관, 개인·협회·기업·정부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전문·특수 도서관이 있다. 서점과는 엄연히 다르다.

도서관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 시설이자 사회 문화정보중심지인데 서점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쓴 것이 눈길을 끈다. 또 축적된 지식을 열람할 수 있는 곳, 공공지원비를 받아 교육·업무·여가 선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국립, 공립, 사립 분류 정도로 도서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대화가 진행되고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도서관의 기능은 다원화되고 규모는 커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취미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몰릴 때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업준생 청년들이 도서관의 단골이 되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직속 산하에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생겼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공공도서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5년마다 미래 청사진

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는 그에 맞는 실행계획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게 돼 있다고 한다.¹⁾ 2019년 위원회는 그간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해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모토로 하는 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신기남 위원장은 한 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상위권인 경제 대국이지만 문화 수준은 열악하다면서 여전히 책만 빌려주는 기관으로 남아 있는 도서관이 적지 않고 사서 배치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했다. 법에 정해진 총원율의 26%밖에 안 되고 사서가 아예 없는 공공도서관이 48곳이나 된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한 위원회에 실제 결정 권한이 없다 보니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고 했다. 위원회 위상이 위축되면 지자체들이 계획 심의를 엄밀하게 하지 못하고 도서관 측 사람들도 지자체를 독려, 촉구 정도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전문가인 사서가 장서를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궁리해야 하는데 그런 여유 자체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항상 ‘우리는 지금 문화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라’라고 말한다고 했다.²⁾

그런 열악함을 전하면서 신기자는 민간에 붙고 있는 도서관 변화에 대해 전하고 있었다.³⁾ 삶의 문제를 풀 실마리 제공하는 장소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용인 느티나무도서관이나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는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소개하면서 진열의 방식부터 설립 이념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신기자는 1920년 독립운동가 윤익선이 세운 경성도서관을 시초로 잡으면 올해가 도서관 100년이 되는 해이고 2009년부터 5년 주기

1) 신준봉 기자, “사서 0명 공공도서관 48곳, 법정 총원율도 26% 그쳐” 2019년 3월 30일 중앙선데이

2) 신준봉 기자, “도서관 역사 100년, 단순히 ‘책 빌려보는 곳’ 이젠 벗어나야” 2019년 3월 30일 중앙선데이

3) 신준봉 기자, “열람실 대신 주제별 서가…북카페 같은 도서관도 있다.” 2019년 3월 30일 중앙선데이

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세워 실행 중이지만 돌이켜보면 질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도서관이 서구 선진국에서처럼 지역 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되거나 민주적 토론의 실험장으로 발전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2. 시민들의 창의적 공유지로서의 도서관

도서관의 초대로 종종 강의하러 가는 정도의 교류를 가진 외부인으로서 도서관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할 정보는 내게 없다. 그러나 기적의 도서관 등이 생겨날 즈음부터 한국에서 지역 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되거나 민주적 토론의 실험장으로 발전한 도서관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크게는 디지털 정보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도서관이 해야 할 일이 크게 늘었고 작게는 마을 공동체를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이 괄목한 활약을 하고 있다. 여기에 그간에 도서관에서 해온 활동을 북카페나 책방, 그리고 온라인 독서 모임 등에서 하게 된 변화에 주목해보자. 아주 많은 시민이 단골처럼 들락거리는 교보문고 같은 곳도 원하면 쉽게 도서관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고 영화관이기도 하고 전시회가 되기도 하고 책을 팔거나 읽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도서관의 범주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립도서관이면서 어느 곳보다 공공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느티나무도서관> 같은 곳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아주 훌륭한 학교가 될 가능성을 가진 곳이다. 무엇보다 좋은 도서관에는 찾아온 이용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들과 함께 질문을 던지고 탐구의 길을 가는 수준 높은 사서들, 곧 지식 큐레이터들이 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교사라면 나는 자주 내 학생들을 그 지역의 도서관으로 데리고 가서 사서들로부터 정보를 찾는 방법과 최근의 지식 지형에 대해서 배우게 할 것이다.

이미 온라인을 통해 거의 모든 책은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의 기능을 책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독서에 국한 시킨다면 도서관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곳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롭게 도서관의 기능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므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지식 검색과 지속적 탐구를 위해 도서관을 찾을 것이다. 도서관은 그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대변화를 속도감 있게 따라가는 지식 생산과 축적과 순환의 플랫폼으로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3. 학교와 도서관 사이, 그리고 그 예산의 차이

근대적 학교를 재설계하면서 학교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가진 유현준 건축가는 최근 유튜브 강연을 통해 학교의 기능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곧 지식 습득, 돌봄/양육, 그리고 ‘사회’ 내지 ‘사회생활’이 그것이다. 도서관은 어떤가? 정보와 지식 습득, 정보와 지식의 압축보관, 그리고 그곳을 찾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사회, 내지 사회생활일 것이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볼 때 도서관은 조만간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지식 탐구를 위해 방문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온라인으로도) 사서들은 지식 큐레이터와 지식 인큐베이터로서 교사들의 자문역할 등 아주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도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도서관은 이런 준비를 해왔는가?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교육인적자원부의 2020년 예산은 77조3,871억 원이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60조 4,126억 원으로 가장 많다.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1조 원을 조금 넘는다. 도서관계의 예산은 얼마나 될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쓰는 교육계는 입시 교육을 넘어서 수 있을까? 미래 교육 그림 그릴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첫째 교육부의 지출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75.2%, 시설비로 10.1%로 예산의 85.3%가 인력과 시설 비용이다. 학교라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그 안의 종사자를 관리하는 역할에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서 급진적 전환이 불가능해 보인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특수에도 교육부 초유의 관심은 등교와 '수업/학습 공백'이다. 지금은 입시 교육을 넘어서 AI 시대를 살아갈 '신인류'를 키워내는 정보 사회적 접근을 해야 하는데 관료 체제는 그런 질문 자체를 던지지 못하고 있다. 책임 소재 묻는 것이 두려운 보수적 관료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세 번째로 현재 공교육 교사들은 원격 수업 실험을 하느라 분주하다.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그들의 실험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현행 입시 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학원의 학습 큐레이터가 하는 일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하는데 새 술을 빚지도, 포대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간의 근대 체제가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는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기존의 기구들은 모두가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다. 학교는 무엇인가? 학교는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왜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도서관은 무엇인가? 도서관은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왜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와 혐오 사회,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성찰성 없이 날뛰는 시민들의 횡포함을 보면서 도서관을 찾는 차분한 시민들이 그리워진다. 격식과 서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보를 찾고 나누며 시대적 난제를 풀어가려는 이들이 모여드는 곳이 후기근대적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는 훌륭한 도서관이었다. 팬데믹의 시대, 근대의 종말을 고하는 탈근대, 탈인간 시대의 도서관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까? 한편으로는 지식 정

보화를 제대로 해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과와 문화, 삶과 삶을 연결하는 사서들이 명실공히 시대의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 큐레이터로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간의 사서들이 분류 전문가인 이과형이었다면 앞으로의 사서들은 이과와 문과를 두루 겸비한 새로운 시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과학기술이 인류를 구원하리라고 믿는 과학기술주의자들이나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지만 이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연결 속에서 제대로 된 해답은 찾아진다. 그것도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온 현생 인류가 거쳐온 보다 큰 사회진화의 흐름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문제이다. 교육 격차를 줄이자거나 원격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내가 선 자리, 내 가족이, 내 동네가, 내 국가의 민낯, 인류의 현재, 그리고 지구상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의 미래를 숙고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4. 기후 변화와 팬데믹 시대, 만물이 서로 돕는 플랫폼

우리는 지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근대 초기의 명제가 “나는 관계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는 후기 근대의 명제로 바뀌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알고리즘적 사유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잘할 테니까 사람들은 AI에게 그런 일은 맡기면 된다. 대신 자신들은 AI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할지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지혜의 시공간이 필요한데 도서관이 그 역할을 해낼 핵심 기관 중 하나일 것이다. 고양된 인간으로 성숙해지는 감을 느낄 수 있는 곳, 이전 세대의 지혜를 담은 책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앞으로 태어날 7세대의 삶을 고려하며 지금 내가 선 자리를 성찰하고 함께 탐구하는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환대와

호혜의 장소로서의 도서관으로 진화하기 위해 각자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해야 할 때이다. 삶과 앎을 연결하는 지식 정보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은 규모와 목적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을 학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실험 대학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은 예산을 늘리고 인재들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일일 것이다.

이런 도서관 진화의 과정에서 도서관의 모습을 상상하던 이들에게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출현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물리적 만남이 금지된 상태에서 도서관은 어떤 진화를 해나가야 할까? 도서관은 최근의 변화, 특히 온라인 시공간의 등장과 대면이 어려워진 상황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사건사나 국면사적 차원에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다. 거대한 문명 차원의 시간, 그리고 국민국가로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서 답을 할 질문이다. 여기서 나는 느슨한 관계들, 자발적인 관계들이 맺어지고 자연스럽게 학습과 놀이가 이루어지는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강조하려고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는 자발성과 비공식성을 담보한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제3의 공간’이라고 부르면서 후기 근대적 삶의 활력은 그 공간에서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다. 카페와 술집과 공원 등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다.⁴⁾ 가정을 뜻하는 제1의 공간과 일터를 뜻하는 제2의 공간과 달리 제3의 공간은 가정과 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개인이 중심이 되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스스로 활력을 찾고 자기 계발을 하며 뜻 맞는 사람들과 만나 무언가를 도모하는 장소이다. 제1, 2 공간이 도구화되고 스트레스를 주는 시공간이 되면 될수록 제3의 공간은 활성화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우러지고 행복하게 작당하는 ‘제3의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은 실은 다시 사람을 중심으로 문명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4) 레이 올든버그 제 3의 장소 the good great place 2019 풀빛

비록 집에 콧 박혀 지내게 된 지금까지만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이어가고 탐구를 계속할 것이다. 새로운 질문과 발상을 하고 자신과 주변을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새로운 인식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 가는 일로 바빠져야 할 것이다. 동네 아이들을 신인류로 키우는 작은 동네 도서관에서부터 시대의 첨단 문제를 푸는 지식정보실험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대학’ 역할을 하는 도서관까지 아주 다양해질 도서관의 미래를 상상해본다. 이 자리가 그런 문명적 전환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에필로그 ; 사냥꾼이 주도한 인류의 진화와 그 마지막 페이지⁵⁾

인류의 역사, 특히 사냥꾼의 역사를 3분 37초 안에 탁월하게 그려 낸 애니메이션이 있다. 천재 작가 스티브 컷츠 Steve Cutts 가 2012년 12월 21일에 올린 <Man>은 4천만 이상이 본 동영상인데, 한 남자 사람이 딱정벌레를 밟아 죽이고 손을 들어 “앗싸” 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⁶⁾ 계속 길을 가면서 그는 뱀을 잡아 가죽 구두를 만들어 신고 닭을 잡아 ‘켄터키 프라이드치킨’으로 튀겨 먹고 양의 다리를 분질러 뜯는다.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총을 들고 나타난 그는 물개를 잡아 외투를 만들어 입고 박제 장식을 위해 표범을 죽이고 코끼리 사냥으로 얻은 상아로 피아노 키보드를 만들어 연주하는 고상한 교양인이 되기도 한다. 종이 생산으로 우거진 삼림이 사라지고, 콘크리트 빌딩 숲이 들어선 도시는 밤낮없이 전기를 돌린다. 거대한 축산 농장과 유전자 조작 농산물 공장이 곳곳에 들어서고 온갖 종류의 생체 실험이 자행되면서 생태계는 급격히 파괴된다. 쓰레기 더미가 되어 버린 지구 꼭대기로 올라간 이 남자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늪

5)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원이 주최한 <슬기로운 미래 교육 시즌 1> “대학사회는 COVID 19 위기 국면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나?”에서 발제한 미발표 원고의 일부입니다.

6) Steve Cutts(2012), <Man>. www.youtube.com/watch?v=WfGMYdalCIU 코로나19 사태 이후 스티브 컷츠는 <Man 2020>이라는 제목으로 사람이 자가 격리를 하자 모든 생명체들이 나타나는 애니메이션도 출하했다. www.youtube.com/watch?v=DaFRheiGED0

하게 걸어가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 시가를 피운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도착한 눈이 한 개, 세 개 달린 외계인들이 그를 기이하게 보다가 왕좌에서 끌어내 밟아 버린다. “Welcome!”이라는 팻말을 남기고 그들은 쓰레기 더미 지구를 떠난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비상이 걸렸다. 스티브 컷츠는 인간이 스스로 거리 두기를 하며 자가 격리를 시작하자 야생 동물들이 도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동영상 Man 2020을 출시했다. 스티브 컷츠의 동영상은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눈이 하나, 그리고 세 개 달린 외계인은 오지 않았지만 대신 바이러스들이 출현하고 기후 재앙으로 홍수와 가뭄, 산불이 수시로 일어나 인간들에게 경고를 내리고 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사냥꾼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이 역사의 끝은 공멸이다. 짙어지는 죽음/죽음의 시간을 살림/생명의 시간으로 전환해 내는 일이 시급해지고 있다.

인류가 탄 배는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하고 있다. 살겠다고 밀치고 아우성치는 사람, 평화롭게 죽어 가겠다고 갑판에서 숨을 고르고 바이올린 합주를 시작하는 사람, 그 와중에도 열애에 빠진 주인공들, 그 상황 자체를 애써 무시하면서 안락함을 느끼는 사람 등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이런 침몰을 일찍이 감지하여 대한민국 청년들은 한국을 ‘헬 (조선)’이라 불렀고 울리히 벡은 한국은 아주 ‘특별한’ 위험사회라고 말했다. “전통과 제1차 근대화의 결과들, 최첨단 정보사회의 영향들, 제2차 근대화가 중첩된 사회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위험사회라는 것이다.”⁷⁾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헬조선’의 청년들은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의 국민으로 전될만한 시

7) 최보식, 정혜진, <첫 내한한 ‘위험사회’ 저자 울리히 벡 교수 인터뷰> “위험은 스스로 통제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감정. 北核위험에 오래 노출돼있으면 위험 잘 못느껴” 조선일보 2008년 4월 1일

간을 보내고 있다. 서구 선진 자본주의 제국들이 어이 없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그나마 제대로 방역을 잘 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나마 덜 망가진 상태의 국가를 만나면서 자부심을 갖게 된 듯 하다.

군사주의와 과학기술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 자본주의는 19세기와 20세기 초 ‘벨 에포크(가장 아름다운 시대)’를 찍은 후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제국주의적 확장을 통해 꽃 핀 서구 근대 자본주의 문명의 수명은 길지 않을 듯 하다. 일찍이 타자의 몸과 영혼을 지배하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이라고 지적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교훈을 새겨들었다면, ‘생존 투쟁’의 법칙이 아니라 ‘상호부조’의 법칙이 종의 진화에 더 중요한 법칙이었음을 간과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모든 관계가 깨져 나가는 지금, 공생의 기쁨을 경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은 가능할까? AI의 지시를 따르며 인류는 멸종할까 AI의 지원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신인류’가 다시 괜찮은 시대를 만들어낼까?

코로나 사태를 둘러싸고 전문가 회의와 각종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주의와 과학기술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서구중심주의와 후진국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객관주의와 절대 보편원리를 향한 거대담론의 위력에서 벗어나고자 할까? 모두가 다시 이론가와 전문가가 되려고 하고 시대의 흐름을 보지 않은 채 편협한 전문가로 남아있고자 하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소박하게 둘러앉아야 할 시간이다. 다른 세대, 다른 관심과 전공, 다른 삶의 경험을 하고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이들과 마주하는 것, 마스크를 쓰고, 또는 모니터 앞에서 화상으로 만나야 한다면 그리 해야 한다. 각자 선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피곤하지 않는 그런 자리, 구체적 인간으로서 구체적 인간을 만나기 시작해야 한

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가려는 다양한 존재들과 만나는 것 자체, 급한 불을 끄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방역 주체’가 아닌 ‘전환 주체’로서 만나기 시작해야 한다.



현재가 된 미래,
도서관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서 해 란
국립중앙도서관장

현재가 된 미래, 도서관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1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도서관의 대응

1.1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2019년 12월 중순 중국 우한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가 발생하였다. 2020년 1월 7일, 중국 CCTV가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하고, 1월 13일 중국 정부가 이 질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했을 때만 해도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빨리 전 세계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빠트릴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에 코로나19¹⁾에 대하여 전염병의 최고 위험등급인

1) WHO(세계보건기구)는 2월 12일에 이 감염증의 정식 명칭을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로 확정했고, 같은 날,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어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로 정했다.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을 하였으며, 확산세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²⁾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유입 확진환자가 처음 확인된 1월 20일에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1월 27일에는 ‘주의’에서 ‘경계’로, 2월 23일에는 ‘심각’단계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강력하게 시행되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었지만, 8월 19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으며, 8월 23일부터는 그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경고해왔던 2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시점이다.³⁾

1.2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 현황

1) 휴관

갑자기 맞이한 코로나19 사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 세계 모든 도서관들에게 전대미문의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직원도 출근하지 않는 완전한 폐관에서부터 운영시간이나 이용자 수 등의 제한, 사람들이 비교적 오래 머무는 열람실이나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서비스의 중단, 비대면방식의 대출반납으로 서비스 최소화 등 다양하고 어려운 결정이 이루어졌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한 경우도 있고, 도서관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정책을 채택한 스웨덴에서는 자치단체의 90% 이상이 계속 도서관을 개관할 뿐만 아니라 85%는 확대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하였다.⁴⁾

2) 8월 22일 현재, 전 세계 누적 환자 수는 2,280만 명, 사망자는 79만 6천 여 명에 이른다.

3) 8월 22일 현재, 국내 누적 환자 수는 1만7천명, 사망자는 309명이다.

4) 상세한 상황은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COVID-19 and the Global Library Field(<https://www.ifla.org/covid-19-and-librari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중앙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별 지침과 지자체와 모체기관의 결정에 따라 휴관과 제한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표 1>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전국에 걸친 1,141개 공립 공공도서관들의 휴관 비율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한 5월 5일까지 97.2%에 이르다가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하향조정된 5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16%로 상당수가 재개관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5월 29일부터 수도권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면서 57%로 늘었다. 7월 20일 정부가 수도권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운영 재개를 결정하면서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재개관하여 8월 10일 현재 휴관비율은 다시 16%가 되었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이 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도서관 등 다른 관종의 휴관 현황은 전수조사된 통계가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표 1>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 현황

(2020년 8월 22일 현재)

기간	운영현황	근거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도서관 운영중단 	최근 중국 허페이시 입국자 열람실 방문 (국립중앙도서관장)
2.7~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관5층 자료실 운영중단 	
2.24~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관 온라인, 우편복사,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집에서 이용 가능한 온라인자료 확대 사서교육: 이러닝, 재택교육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22~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개관 및 제한적 이용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온라인 및 전화 예약 좌석의 30% 반납자료는 소독 후 24시간 별도 보관 후 서고 입고 이용자와 직원 동선 분리 사서교육: 집합교육, 이러닝, 재택교육 	수도권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운영 재개 결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관 온라인, 우편복사,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사서교육: 이러닝, 재택교육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비대면 서비스 강화

코로나19 사태가 도서관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휴관기간 중에 우편복사서비스, 전화상담서비스와 함께 저작권이 없는 각종 디지털자료, 오디오북(책읽어주는 도서관), 전자책·전자잡지·전자저널·음악·동영상·통계·서지 등 국내외 웹데이터베이스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서비스들은 대부분 평소에도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던 것들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맞아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는 물론이고 도서관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려고 노력했다. 본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계획되었던 전시회, 교육프로그램, 문화행사 등도 역시 급히 비대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홍보용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부딪치는 난관은 저작권의 제한,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부족, 검색 등 기술적 한계 등이다. 이에 따라 구독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 기존에 도서관 외부 이용이 가능한 27종에 더해서 이용도가 높은 9종(국내 3종, 국외 6종)을 한시적으로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현재까지 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화 자료 133만 책 중 저작권이 있는 자료 약 110만 책의 저작권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용동의 캠페인 실시, 부족한 전자책 콘텐츠를 확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국가전자도서관의 올해 상반기 이용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8% 증가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자책 등 각종 디지털자료 이용건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는 7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서비스의 이용 건수와 점유율을 보여준다.

<표 2>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서비스 현황

(2020년 7월)

구분	전자책	전자저널	음성·음향	영상	이미지
수량(건)	1,039,302	4,813,896	479,731	26,265	208,340
점유율(%)	6.7	31.0	3.1	0.2	1.3
구분	웹사이트	디지털화자료	해외기록물	국외고문헌	장애인대체자료
수량(건)	686,209	8,160,531	38,870	17,910	51,069
점유율(%)	4.4	52.6	0.3	0.1	0.3

국립중앙도서관은 3월 19일부터 웹자원 아카이브(OASIS)의 재난아카이브⁵⁾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의 발생부터 확산, 방역,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의학,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온라인 기록이 수집·보존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기획단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휴관을 실시한 전국 공공도서관 중 877개관이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도서관(702개관), 스마트도서관⁶⁾(274개관), 예약대출(206개관), 도서배달(185개관), 승차대출⁷⁾(83개관), 기타(지역서점 희망도서 대출 등, 548개관). 이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들은 대체로 도서대출 서비스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도서관들이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책 등 충분한 디지털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독서모임 등 동아리활동, 강연과 교육활동, 책읽어주기 등 이용자

5)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세://oasis.go.kr](http://oasis.go.kr)는 디지털 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2004년부터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 중 재난아카이브는 1995년 삼풍백화점붕괴, 2014년 세월호침몰사고,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해외재난을 기록한 웹사이트, 이미지, 동영상, 웹문서를 수집하고 있다.

6) 도서 약 400~600권을 비치해 이용자가 손수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한 자동화기기.

7)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한 도서를 차에 승차한 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Book Drive-Thru.

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기능으로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활발하게 수행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실시한 미국공공도서관협회(PLA)의 조사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대부분(98%)이 건물을 폐쇄한 가운데, 온라인대출연장정책 확대(76%), 전자책과 미디어스트리밍 등 온라인 대출 확대(74%), 가상프로그램 추가(61%), 온라인참고서비스 확대(41%), 전화 참고서비스 확대(38%), 승차대출(22%), 도서배달(6%) 등을 활동을 수행했다고 응답해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상황과 대비된다.⁸⁾

3) 방역대책

도서관은 다중이용시설로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위험도가 결코 낮지 않다. 이에 따라 도서관들은 대부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위생적인 도서관 이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출입시 발열체크, 전자출입명부 작성, 관내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비치, 관내 소독 강화, 정기적 환기, 반납 자료 소독, 컴퓨터 등 이용기기 소독, 좌석간 거리 유지와 동선 관리, 투명칸막이 설치, 방역관리자 지정, 의심환자 격리공간 확보, 직원에 대한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공공(작은)도서관 대응 지침’(2020.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도서관’(2020.7) 등을 발표하였다. IFLA는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도서관자료와 컴퓨터기기의 방역, 직원방역, 대출과 반납,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도서관 서비스, 재개관 같은 주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역정부나 도서관협회의 지침, 각국 도서관의 사례, 연구결과, 웹세미나(webinar) 등에 대한 정보를 링크와 함께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8) Public Library Association(2020). Public Libraries Respond to COVID-19: Survey of Response & Activities. http://www.ala.org/pla/sites/ala.org.pla/files/content/advocacy/covid-19/PLA-Libraries-Respond-Survey_Aggregate-Results_FINAL2.pdf

4) 재난대응 거버넌스

도서관 거버넌스는 국가, 지역(광역과 기초), 모체기관, 단위도서관, 후원 조직 등 여러 층위로 구성된다. 유럽 내 도서관협회 등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인 EBLIDA(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ssociations)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단위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요구를 발견하여 충족시켜주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서관협회와 국가도서관 같은 중앙집권기구들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제가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보건정책은 물론 디지털서비스 확대를 위한 저작권문제 해결이나 기술표준화, 통계를 포함한 도서관 관리기능 조정을 위해 도서관 거버넌스의 중앙집권화가 요구된다고 했다.⁹⁾

〈표 3〉은 주요 도서관 거버넌스 기관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수행한 대표적 활동들 가운데 극히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단위 도서관들이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침 제공, 원격교육, 미래전략 제시, 문제해결 등 다양한 방향에서 유용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주요 도서관 기구들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활동 사례

주체	활동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FLA)	• 세계 각국 도서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전략과 활동의 지속적 정보 공유(COVID-19 and the Global Library Field)
유럽 도서관, 정보 및 다큐멘테이션 협회 (EBLIDA)	• 유럽 17개 회원도서관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추진한 전략과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고 5대 전략방향 제시(A European Library Agenda for the Post-Covid 19 Age)
유럽 공공도서관 국가기구(NAPLE)	• 유럽 20개국 회원도서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활동 현황과 사례 공유(Public Libraries in Europe and COVID-19: Findings from NAPLE Members)

9) EBLIDA(May2020). A European Library Agenda for the Post-Covid 19 Age. <http://www.eblida.org/Documents/EBLIDA-Preparing-a-European-library-agenda-for-the-post-Covid-19-age.pdf>

주체	활동
핀란드도서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재개관, 전자책 및 디지털매체 서비스 촉진을 위한 웨비나 개최
영국국가도서관(BL), JISC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의약 정보의 오픈액세스,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디지털콘텐츠의 동시접속자 수 제한의 일시적 면제 등 원격교육과 연구를 위한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영국연구도서관협회(RLU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사태에서 회원도서관들의 대응상황(리더십, 장서, 공간 등) 및 미래방향에 관한 보고서 출판(Covid-19 and the Digital Shift in Action)
호주도서관정보협회(AL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재개관 시 고려할 사항과 주요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COVID-19 and Australian Public Libraries) • 호주 내 저작권단체들과 공공도서관의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의 디지털서비스를 위한 한시적 저작권 허용 협정 체결
미국공공도서관협회(P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2,500개 이상의 도서관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확보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도서관 활동 및 정책 지원 요구사항 공유 (Public Libraries Respond to COVID-19: Survey of Responses & Activities)
미국도서관협회(A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데믹 대응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 운영 (Pandemic Preparedness: Resources for Libraries)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업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한국도서관협회 등을 통해 홍보 •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공립 공공도서관의 입주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 • 사립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1,103개관)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 예산지원(3차추경): 공공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수행 인력 지원 25억6,500만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디지털음성도서, 수어영상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 13억1,400만원
국립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서관 대응 기본계획 수립 • 해외 국가도서관(이란, 아일랜드, 체코, 일본 등)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보 공유
한국도서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24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도서관계 입장' 발표: 운영주체는 안전 보장 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강제하기 말 것, 휴관에 따른 비정규직원의 경제적 불이익 방지할 것, 국민과 이용자는 휴관의 불가피성, 도서관과 사서의 노력을 이해해줄 것 • 6월 23일 입장문 '코로나19 이후 도서관 재개관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발표: 시민과 직원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재개관할 것

2 코로나19 사태가 도서관에게 던지는 과제

2.1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서관이 가야 할 방향

초조하면서도 지루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 한 가운데에서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Post Covid-19)에 대한 전망과 대비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의 경제전문지 Forbes는 코로나19 이후 인류는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아홉 가지로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① 비접촉식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 확대, ② 강화된 디지털 인프라, ③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더 좋은 모니터링, ④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⑤ 원격진료, ⑥ 온라인 쇼핑 확대, ⑦ 로봇에 대한 의존도 증가, ⑧ 디지털 이벤트의 증가, ⑨ e-스포츠의 부상이 그것이다.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류는 생존을 위해 비대면 문화를 본격화하는 길을 택할 것이며, 그것이 4차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한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들은 그 때문에 팬데믹에서 살아남을 것이며, 온라인을 통한 초연결사회에서 더 넓은 관계를 형성하며 문명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¹⁰⁾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과 ‘온라인’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초연결사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며 살아갈 것이다. 빅데이터, 기계학습,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로봇으로부터 필요한 전문가 서비스를 받고, 지식정보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교류

10) 최재봉(2020). “문명의 전환”, 최재천, 등. 코로나 사피엔스. 서울: 플루엔셜.

하면서 공유할 것이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문화체험을 즐기게 될 것이다.¹¹⁾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큼 다가와 현재가 된 미래, 온라인과 비대면이 새로운 규범(new normal)이 되는 코로나19 이후를 위해 도서관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국립중앙도서관은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포스트 코로나 준비 TF’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해야 할 6대 과제를 발굴했다. ①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다양화, ② ‘집에서 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 강화, ③ 디지털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④ 비대면 도서관 이용 환경 조성, ⑤ 온라인/비대면 기술 인프라 강화, ⑥ 도서관 안전망 구축 매뉴얼 마련이 그것이다. 이 전략들은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업 및 유관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기반으로 추진됨으로써 전국의 모든 도서관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된다.

CDNL(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국가도서관장회의)의 의뢰를 받아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5월 29일부터 6월 10일 동안 실시한 조사 결과보고서¹²⁾에 의하면, 회원 국가도서관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은 교훈으로 기관 운영 측면에서는 시의적절하고 단호하며 효과적인 예방 및 통제 조치, 그러한 조치에 대한 홍보, 직원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 및 재택근무를, 서비스 측면에서는 비대면 서비스의 필수화, 전자자원 개발과 온라인 서비스 강화, 디지털화의 중요성, 소셜 네트워크 활동 확대 등을 꼽았다.

정리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도서관, 즉 새로운 규범이 적용되는 도서관(new normal library)은 ‘온라인’과 ‘비대면’

11)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2017). 10년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서울: 진한M&B.

12)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On behalf of CDNL(June 2020). Survey Impact COVID-19: Reopening the Library. <https://conferenceofdirectorsofnationalelibraries.files.wordpress.com/2020/07/200708-survey-impact-covid-19-reopening-def-1.pdf>

기술을 활용해서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안전’한 도서관이라고 하겠다.

2.2 새로운 규범이 적용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

1) 디지털 콘텐츠의 확보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쇄본이 장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도서관이 아직 많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을 사용해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콘텐츠의 비중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 추세선은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면서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도서관은 전자책, 전자저널, 오디오북, 웹 자원, 스트리밍 자원, 소셜 미디어 자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자원 등 전통적 출판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도서관 장서에 비용효과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국립도서관은 현재 15%에 불과한 온라인자료의 납본 확대 추진은 물론,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근거한 고아저작물의 발굴, 학술정보의 오픈액세스 지원, 문화예술기관 등 공공기관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외연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사진과 음원 등을 대상으로 주제별 미디어 컬렉션을 구축하여 서비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인쇄본을 비롯하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이다. 디지털화는 높은 비용과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위도서관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조차 매년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아직 소장자료의 원문 DB 구축 비율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앞으로는 정부

가 추진하는 디지털뉴딜 정책으로 인해 정보자료의 디지털화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해상도의 질 높은 디지털화와 함께 본문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 변환과 본문 속 표와 그림 데이터 추출 등 디지털화 자료의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 저작권

도서관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큰 산이 바로 저작권 문제다. 「저작권법」 제31조는 이용자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권이 있는 도서 등의 일부분의 디지털 복제물을 도서관 밖에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화 자료 중 84%(111.5만 책)는 자관 및 2,260개 협약도서관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해서 도서관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다.¹³⁾ 도서관 이용자는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자료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조사·연구 및 학습 목적으로 도서관 밖에서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비영리법인 Internet Archive 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기한 휴관하는 각급 학교, 연구소, 도서관 등이 늘어나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관이 그동안 구축한 140만 건이 넘는 디지털화 자료와 250만 건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공개 도메인 자료로 National Emergency Library 를 구축하고, 한시적으로(2020년 3월 24일 ~ 6월 16일)¹⁴⁾ 전 세계의 연구자, 사서, 교사,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격에서 동시접속자 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 굳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도 모바일과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도서관서비스가 보편화되어가는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14) 6월 17일부터는 Internet Archive가 운영하는 openlibrary.org에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 사람이 최대 10책까지 14일 동안 전자책을 대출할 수 있다. 단 디지털대출의 제한이 걸린 자료의 동시 접속자 수는 1명이다.

3) 인적 자원의 재구성과 서비스 혁신

코로나19 사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같은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이 도서관 업무에 빠르게 적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최근까지 도서관에서 로봇은 주로 도서관 안내, 서고작업, 도서배달 등 단순한 업무에 적용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렇지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관련 기술 수준이 발달하면서 참고서비스와 독서상담을 수행하는 챗봇, 어린이에게 책읽어주고 대화하는 로봇, 자동분류와 목록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등 사서의 고유한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GPT-3¹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도서관에서 사서 업무 전체를 아예 로봇으로 대체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도서관에서 사서가 여전히 전문직으로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규범이 적용되는 도서관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지향점은 ‘이용자와 소통하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이 아닐까?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대세가 된다고 해서 도서관이 이용자와 멀어지거나 단절된다면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는 더 이상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온라인 기반의 문화 프로그램,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교육,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토론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과 강연, 일상화된 원격교육 지원 또는 디지털우울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같이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5) 미국의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소 Open AI가 6월에 발표한 자연어처리기반 인공지능. 사람이 원하는 기능을 표현한 문장을 입력하면 그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주제를 주면 그에 맞는 근사한 소설을 집필한다.

4) 도서관 재정과 예산 분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형편이 낫다고 하지만¹⁶⁾, 그렇다고 안심해도 좋은 상황은 물론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2020년 8월호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110조 5000억 원으로 사상 최악을 기록하였다. 경기악화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이 세 차례나 편성되었으니 당연한 결과다. 코로나19가 극적으로 종식되지 않는 한 재정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당장 내년부터 도서관에 투입되는 재정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지방비와 국비보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공도서관은 물론이고,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등도 역시 마찬가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건비, 도서와 디지털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비, 건물과 시설유지비 등 도서관의 예산 항목들이 대부분 비탄력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EBLIDA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도서관들은 결국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을 위한 예산을 가장 먼저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¹⁷⁾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이 지난 수년간 지역사회와의 연계 혹은 지역사회의 거점 역할 수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시민사회와 정책결정자들의 도서관 인식을 높이는데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고민스러운 분석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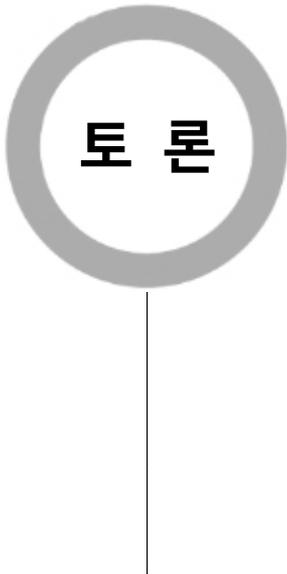
16) 8월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2%에서 -0.8%로 상향조정했으며, 이는 발표대상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는 보도가 있었다.

17) EBLIDA(May2020). A European Library Agenda for the Post-Covid 19 Age. <http://www.eblida.org/Documents/EBLIDA-Preparing-a-European-library-agenda-for-the-post-Covid-19-age.pdf>

3 마무리

전 세계인들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바라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기다리고 있지만,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와 함께(With COVID-19)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도서관’이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도서관’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먼 미래에나 있을 법하다고 상상했던 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도서관과 사회의 모습을 문득 현재 경험하고 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일 게다. 그 과정에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믿는 경구 하나를 나누면서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변화는 늘 두렵고 힘들다. 하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결국 변화를 강요받게 된다.”



토론

【 공공도서관 】 도전과 혁신, 지금부터 시작하자 39

-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 학교서관 】 현재가 된 미래, 학교도서관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 또 중앙정부나 국립기관의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47

- 이덕주 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 대학서관 】 코로나 이후, 대학서관의 변화 55

- 정재영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부장

【 전문서관(의학) 】 코로나19, 의학서관의 변화와 도전 61

- 이은주 고려대학교 의학서관 과장,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이사

도전과 혁신,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거대한 재난은 낡은 사회질서를 작동 불능으로 만든다, 인간은 패배자가 되는 대신 새로운 사회를 실현한다. 이것이 재난 유토피아다 - 레베카 솔닛 〈이 폐허를 응시하라〉 중-”

- 출처 : “포스트코로나, 뉴노멀을 말하다” 김누리교수. SBSCNBC :

<https://cnbc.sbs.co.kr>

코로나19가 몰고 온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경쟁보다 공존이, 성장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혐오, 위기의 일상화, 불평등 심화 등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조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간 우리 사회의 낡은 질서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류의 멸종이냐, 아니면 인류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갈림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공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는 주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의에 앞서 공공도서관 역시 그간 누적되어왔던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났고,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제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서도 언급한 ‘미래를 여는 도서관의 혁신’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공공도서관 현장의 고민과 변화

2020년 1월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생겨난 이래, 공공도서관은 휴관과 부분개관, 재휴관 등을 거치며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상황에, 도서관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변 지자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매번 흔들려야 했습니다. 이는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휴관여부를 결정하느냐하는 것도 있지만, 도서관 내부에서는 무엇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과 원칙의 부재, 그리고 논의의 부재가 만든 공백도 컸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서관이 문을 열 것인지, 문을 연다면 열람실은 어디까지 개방할 것인지, 안심도서대출을 할 것인지 하는, 공간과 도서 대출의 여부와 방식만이 이슈가 되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개인공부방 또는 책 빌려보는 곳으로서만 도서관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래도 공공도서관 현장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여러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홈페이지에 “코로나19”코너를 개설하여 시기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매일 게시하고 있고, 파주시가람도서관에서는 온라인정보활용교육에 게임을 접목해 색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을, 광진정보도서

관은 사서들이 준비한 다양한 온라인콘텐츠를 “슬기로운 도서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파주시중앙도서관에서는 국내잡지 215종을 온라인으로 보는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마포중앙도서관의 “문.방.도(문달고 방안에서 즐기는 도서관)”, 울산동부도서관의 출판사와 협업해 진행하는 온라인 독서프로그램, 서대문구립이진아도서관의 도서관 축제에 대한 온라인토론회 등 도서관 현장에서는 휴관 중에도 도서관이 지역에서 어떤 몫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문을 닫으니 오히려 사서가 보이고 정보서비스가 확장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공공도서관의 노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서혜란 관장님이 발제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극복해야할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존의 질서 내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했듯이 도서관계의 전면적인 대전환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미 바뀌고 있는 것들

올 1월말 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도서관의 기존 질서를 이미 작동불능 상황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이 몇 권이고 프로그램 참여자가 몇 명이라는 양적인 성과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간 도서관이 공간으로 누려왔던 어드밴티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전자자료 시대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도서관 서비스를 제약하는 법적·제도적 한계는 여전합니다. 상업유통망인 밀리의 서재는 이용자의 77%가 2030세대¹⁾로, 2019년말 기준 회원이 100만명을 돌파²⁾하는 등 낱알이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통도 온라인이나 디지털매체를 통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대간 소통 문제, 빈부격차로 인한 불평등 문

1) 출처 : 전자신문, 2019.04.08

2) 출처 : 독서신문, 2019.11.20

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서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는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의미 없어지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공공도서관이 지속해왔던 운영방식 전환과 함께, 이를 지탱해왔던 국가 도서관 체계와 법·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혁신적 개선이 필요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할 변화의 노력

첫째, 재난시기 도서관의 세부지침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국가 방역단계에 따른 공공기관 휴관여부 지침은 내려오고 있지만, 지역특성에 따른 세부 지침과 도서관이 해야할 역할과 활동에 대한 논의와 공유, 그리고 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실행을 도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공공도서관의 상황이 다르고, 코로나19의 확장세도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는 광역단위에 만들어지는게 맞고, 따라서 광역대표도서관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이 지방자치법에 지방사무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논의하고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적용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시민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서비스의 방향을 신속하고 선명하게 결정하기를 어려워하는 각 자치단체 도서관이 근거를 가지고 제안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광역대표도서관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지침이 있어야한다면 국가 단위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의 전제는 광역대표도서관에서 반드시 각 자치단체 도서관현장과 함께 논의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기반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둘째, 변화하는 시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서관법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저작권법 등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개정 노력을 해야합니다. 지방자치법만 보더라도, 시행령 별표1에 도서관은 시·도 사무와 시·군·구 사무에 동일하게 설립·운영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광역과 시·군·구 사무에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같은 별표1에 사회복지시설은 광역 사무에 사회복지시설의 기본계획과 지도·감독·지원 등의 역할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도서관이 처한 여건과 특성이 다르다 하더라도 광역대표도서관이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고,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도 서혜란 관장님이 발제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시기 도서관이 온라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듯 도서관도 이제는 도서관법 뿐 아니라 관련 법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도서관이 시민들의 불안과 삶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도서관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혁신적인 구조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역으로의 권한 배분과 소분화된 정책 실행체계가 필요합니다. 딱딱하고 무거운 방식이 아니라 보다 유연하고 가벼운 방식으로 각 지역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구조와 제도를 모색해봤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COP(Community of Practice)를 국가나 협회차원에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미국도서관협회(ALA)는 2014년부터 같은 생각을 가진 회원들에게 활동을 조직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조직인 이니셔티브 그룹(MIG: Membership Initiative Group)을 만들어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도서관(LTC: 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y)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실천모델을 찾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서관 현장과 연구 분야에 있는 보다 젊은 사서들, 그리고 도서관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사회의 변화와 도서관, 시민의 삶에 대해 실험하고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찾아 정책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존 도서관의 질서와 체계를 새롭게 혁신하는 가장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내부적 혁신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에 공공도서관이 나서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의 대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아직 예측이 어렵습니다. 도서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이슈를 제기하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며 방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조한혜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방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함께 해결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도서관은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질문을 떠올리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내부적인 혁신 체계를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과 삶을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도서관이 보다 더 절실해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유토피아를 꿈꾸며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것이 지

금부터 바뀌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서관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변화를 고민하고 필요한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가능한 것부터 빠르게 시도해야할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럼이 변화를 위한 출발점,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가 된 미래, 학교도서관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 또 중앙정부나 국립기관의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이 덕 주

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1. 학교도서관의 코로나 19에서의 상황

가. 학교도서관의 양극화

학교도서관은 학교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학교와 교육과 한몸을 이루며 간다. 학교가 휴교면 학교도서관도 자연스럽게 휴관이다.

학교가 휴교하는 동안 학생들 교육의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오히려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을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학원으로 과외로 밀받침 해줄 수 있는 가정의 학생이 있다. 한편에는 그나마 학교에 등교를 함으로써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

나고 점심도 먹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 사회적 양극화가 그래도 학교에 와서는 평등한 대접을 받았는데 같은 학교, 같은 교사, 같은 급식을 먹었는데 코로나19상황은 학생들의 교육양극화를 가져왔다.

또한 온라인 수업 개학이후에는 학교간의 양극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즉 실시간 쌍방향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학교와 소극적으로 기존 콘텐츠만을 활용하는 학교로 나누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학교간의 차이는 학교도서관간에도 큰 차이를 가져왔다.

아무런 전담 관리자가 없는 대한민국의 절반에 달하는 학교도서관은 아직도 단 한 번도 문을 열어보지 못한 학교도서관이 대부분이다. 일반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교도서관은 일반 교사들에게 쏟아진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하에서 학생관리, 또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감히 학교도서관업무를 손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을 휴관하라든가 이용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하라는 공문 등은 마음 편하게 등교 중에도 학교도서관을 닫아놓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 사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절반의 학교도서관은 시도 교육청에 따라 학교 휴교기간 중에는 아예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학 중 비근무인 공무원 사서는 학교 휴교기간을 방학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아예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당연히 급여도 나가지 않는다. 향후 공무원 노조의 항의로 일부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열악한 학교도서관의 근무 상황이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

불과 10% 조금 넘는 1,500개에 달하는 사서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현황도 사서교사 개인의 의지나 학교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이 진행되었다. 등교개학 중에도 휴관 또는 아주 제한적인 운영만 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온오프라인으로 작가 강연이 진행되거나 학교도서관활용수업이 진행되는 학교가 있었다.

더 문제는 도대체 전국에 몇 개의 학교가 어느 시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의 운영을 했는지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즉 교육부는 어느 곳에서도 코로나19 상황 중에 학교도서관에선 어떻게 대처했는지 조차 즉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침은 대체로 휴관 - 이런 판단이 적절한 것일까?

학교도서관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정책 부서도 없고 (경기도에만 학교도서관정책과 있다.) 겨우 담당자가 있을 뿐이고 그 담당자도 100% 공공도서관 출신의 사서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보니 학교도서관현장에 맞는 적절한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본다.

초중고등학교는 2020년 3월 1일 ~ 4월 8일까지는 휴교였고 온라인 개학이 2020년 4월 9일부터 이루어졌다. 교사들은 온라인 개학을 했으나 학교도서관은 온라인 개관이 대부분 미루어지기거나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학교도서관에서도 비대면 대출, 전자책 서비스안내 등이 없지 않았으나 그 활용과 홍보는 매우 미비했다. 더 큰 문제적 상황은 등교 개학 이후가 문제였다. 2020년 5월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가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학교에 왔는데 그런데도 학교도서관은 휴관기조였다.

학생들은 기상하자마자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자가진단 체크표 입력을 하고 이상이 없는 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한다. 등교 시에 다시 발열체크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수업 중에라도 이상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관찰실로 보내지고 검사를 받게 된다. 교사들은 늘 학생들 중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지도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학교에서의 감염 전파 사례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수업도 받고 학교 식당에 가서 급식도 먹고 상담실에 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특별교실에서도 수업이 진행되는데 유독 학교도서관은 휴관이라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학교에선 납득이 될까?

하지만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을 휴관하라는 공문이 등교개학 중에도 오고 코로나가 잠잠해진 상황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개방을 하라는 공문이 왔을 뿐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히려 학교의 상황을 감안하면 학교는 휴교를 해도 학교는 온라인 개학만 해도 교사의 손길과 적절한 교육환경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로 나와서 학교도서관 환경과 사서교사의 지원을 받으라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는 곳이 학교도서관이라고 본다. 교사들의 오프라인 수업지원만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지원하고 교사들의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평등 가치에 이바지하는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공격적으로 요구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본다. 코로나19 상황에 왜 도서관이 그리고 도서관에 전문 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도 본다.

2.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것들

가. 학교의 특성 - 자생적 자율적

한국의 교사들이 이번 상황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 그들은 매우 우수한 학습능력을 가진 집단들이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를 일주일 만에 준비해서 현장에서 진행이 되었다. 물론 교육부나 EBS, 교육청 등 각종 유관기관과 다국적기업의 협력과 협조가 있었지만 각 단위 학교의 교사들이 구글 미트(Google Meet),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S TEAMS), 줌(Zoom)을 익히고 현장에서 적용을 해냈다.

사서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 도서관이용, 도서관활용 수업자료를 만들어내고 창조적으로 도서관운영을 학교 상황에 맞게 진행했다.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독서토론을 진행하기도 하고 비대면 대출을 하는 등 문단은 학교와 첨단을 달리는 학교도서관으로 양극화된 상황으로 드러났다. 이런 정보를 자체 조직과 커뮤니티를 통해 활발히 공유하면서 각자 창조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전자책을 계약해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유도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구독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서관정책이나 교육정책은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를 균등하게 균일하게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렇려면 국가단위의 학교도서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학교도서관 정책은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모든 관종의 도서관이지만 학교도서관의 도서관 업무는 극히 제한적이다. 학교도서

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무엇을 했는지 어디까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 그나마 나오는 기준은 학교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들이 나온다.

나. 정책적인 방향제시도 있어야 한다.

문체부는 학교니까? 교육부에선 워낙 작은 일이니까 파견직 연구사 한명이 겨우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청에선 공공도서관 사서분들이 학교 교사나 사서교사들과 밀착된 소통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적 관성을 갖고 일을 한다. 그런 면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진지한 상황파악도 정책대안 제시도 없다. 난 능력도 없다고 본다. 모르면 물어봐야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단위는 있으려나?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의 전망은 밝다.

교사들은 공문이나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을 기다릴 것 없이 현장에서 각 개전투하고 있다. 그나마 문헌정보학과의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학교도서관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학교도서관의 특성이고 사서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있고 현장중심의 대응능력을 키우고 있다.

학생수 감소 등의 기초 속에서 교사 정원이 감축되고 있음에도 사서교사는 정원증가를 약 200명씩 해내고 있다.

학급수 감소 등의 영향 속에서 교실 유휴공간이 늘어나고 있고 도서관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교과교실제, 입시 공부 문화의 변화로 도서관이 급격히 수업공간으로 자생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문화를 넓혀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유기적으로 엮어줄 국가 교육적 차원에서 국가정책과 도서관정책 차원에서 엮어줄 학교도서관 정책 컨트롤 타워는 필요하다. 그것이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필요성이 아닌가? 그 능력과 틀을 가동시키길 기대한다.

코로나 이후, 대학도서관의 변화

정 재 영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부장

1. 들어가며

대학은 최신 정보와 기술을 가장 먼저 접할 수밖에 없고, 시대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다른 유형의 도서관에 비해 최신 기술과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 따라 대학도서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학도서관의 변화는 건축재정이 필요한 대학의 상황과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 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를 통해 한층 더 대학도서관의 위기가 선명하고 명확해졌다는 사실이다.

2. 대학도서관의 현황

가. 대학도서관의 허약성이 노출된 계기가 되었다

대학에서 도서관 및 일반열람실 폐관이나 일부 제한조치가 한 학기 이상 이어지는 동안, 대학 구성원들의 교육이나 연구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다거나 이용자들의 도서관 개방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들리지 않는다.

이는 대학도서관의 e-journal, e-book 등 디지털 자료의 온라인 제공, 예약 대출서비스 등 발 빠른 대응과, Web DB 업체의 무료 사용 지원(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어려움에 따른 협력적 조치라고 이야기 하지만, 상업적 노림수가 읽혀진다) 등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대학도서관 이외에 다양한 방법(구글, 네이버 등 웹 검색엔진, 그리고 온라인 서점)과 장소(북카페 등)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 정보제공의 주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향후 온라인을 통한 참고질의 서비스와 정보의 재가공 등 지금보다 확장된 범위의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의 완성과 갈수록 정교해지는 검색엔진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수록 이용자들은 다양한 대체제와 보완제를 통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장소를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도서관의 역할이나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나. 전략적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공간과 장서, 서비스 등 도서관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해석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아직은 변화된 시

대와 환경에 맞는 역할, 특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도서관을 아마존 서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를 발표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도서관과 대형서점이 책을 보거나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이 유사하고, 오히려 서점이 이용자의 패턴과 선호도를 감안한 발 빠른 변화와 대응으로 이용자들이 도서관보다 더 선호하는 ‘공간’이라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유지해야 하는 도서관을 없애도 대형서점이 충분히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분명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도서관 공간이 서점이나 북카페와 유사해지고, 이용자의 요구와 유행만을 추구할 때, 그리고 도서관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차별화에 실패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학도서관도 이용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카페, 휴게실 등의 편의 공간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이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만을 추구하고, 상업시설과의 차이점이 사라진다면 이와 같은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¹⁾

또한 3D-Printe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활용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MakerSpace 공간을 도서관 내에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MakerSpace 가 3D 프린터 활용 등 단순한 기술 체험의 공간이 되어가고, 도서관이나 사서의 역할이 없다면 도서관의 공간만을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으로 물리적 공간에 대한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장서공간을 포함해 대학 내 단위 건물로는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공간의 활용 방법과 의미를 찾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1) 정재영, 2020, 대학도서관 공간의 의미와 방향성에 관한 연구, 대학도서관 제3호.

‘장서’는, 도서관이 존재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증명하는 도구이자 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장서가 없는 도서관을 상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장서의 이용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도서관마다 경쟁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프로그램 대부분이 독서퀴즈, 독서골든벨 등 흥미 위주의 ‘이벤트 및 행사형’이 대부분이다. 이는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의 축적과 대학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질적 유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독서클럽 운영 시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이 장소의 제공, 강사 섭외 등 보조적이고 단순한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독서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센터, 서점, 출판사, 공공도서관 등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어 대학도서관만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물리적 장서의 활용이 제한되고, e-book 과 Web DB 등으로 자료의 활용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물리적 장서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의문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역할로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연구지원 큐레이션 서비스’의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 이후 가장 중요하고 활발한 서비스가 될 개연성이 있지만,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으로 연구자들간의 연구 정보와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해 ‘글로벌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연구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3. 해결 방안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대학도서관의 필요성과 위상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대학도서

관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공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그리고, 변화된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대학도서관만이 할 수 있고, 대학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도서관의 전문직성(Librarianship)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도서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 대응 전략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대학도서관과 사서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논쟁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즉, 비대면과 디지털로 연결된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른 대응과 전략을 자발적으로 찾도록 해야 한다. ALA의 미래도서관센터(Center for the Future of Libraries)²⁾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 글로벌 동향³⁾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더해 쌍방향 소통채널 창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을 위한 예산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플랫폼의 이해, 콘텐츠 제작방법, 저작권의 이해는 물론, IT 등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분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가공 능력 등의 직무교육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코로나시대 대학도서관이 스스로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역할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스스로 구상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2) <http://www.ala.org/tools/future>

3) <http://librarian.riss.kr/boardArticle/globalTrends.do>

나. 법과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도서관도 대학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기관이자 부서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은 물론, 모 기관의 각종 행정적인 통제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적 관여를 발전적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감안해 새롭게 개정할 부분이 없는지, 변화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 나오며

팬데믹 상황이 대학도서관에 ‘위기’를 초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위기는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가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AI)에 의해 사서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될지, 아니면 이용자와의 새로운 소통방법을 통한 변화된 역할을 찾게 될지는, 위기라고 하는 공통된 인식의 공유와 정확한 상황 분석, 그리고 전략에 달려있다.

포스트 코로나, 대학도서관이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위상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이 시대와 이용자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먼저 변화를 알려주고 시대를 선도해 가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의학도서관의 변화와 도전

이 은 주

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 과장,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이사

의학도서관은 보건의료의 최전선인 병원과 인접하여 코로나19를 직간접으로 경험하는 기관이 많았습니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 가입된 160개 의학도서관의 81% 도서관은 휴관 없이 의료진과 연구자들에게 의학 정보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그 외 방역 및 병원 지원업무 등 부가적인 업무들로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의학도서관 코로나19 경험 사례

가.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1) 코로나19 연구데이터, 논문, 도서정보 등 공지/메일 발송

- 26개 출판사 학술논문, 3개 출판사 E-Book, 16개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 안내/제공

2) 코로나19 임상질문 및 임상시험자료 제공

- 코로나19 관련 임상질문에 근거 중심의 답변 제공
코로나19 국내 임상시험분석자료 제공 [의과학연구정보센터]

나. 자료 이용 및 서비스 제공

- 1) 전자저널, 전자책, 동영상 및 3D AR 자료 등 전자자원 제공/안내 [주제 관련 동영상 및 3D AR 자료는 전공 강의와 연계, 수업 진도에 맞춰 학생의 참고 자료로 활용]
- 2) 도서 대출반납 기간 연장 및 비대면 도서대출서비스 제공 (기계적 처리, 우편(원스탑)지원)
- 3) 소장된 인쇄자료인 경우, 해당 부분 스캔/제공, 미소장인 경우는 원문복사서비스 이용
- 4) 도서관 교육은 대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실시, 동영상 녹화 교육 홈페이지 제공, 소규모 대면교육으로 변경 실시
- 5) 연구지원서비스 이용 제공 확대, 증가

다. 안전한 시설 관리

- 1) 도서관 열람실의 이용 및 이용 시간 제한(건물 출입제한 또는 일정 구역 제한)
- 2) 도서관 열람실/열람공간 내 사회적 거리두기, 건물 소독 및 소독제 비치하여 개인위생 관리 유도, 마스크 착용 안내
- 3) 병원 지원 업무 병행
발열 체크 및 환자 안내, 임시 휴관기간의 환자/보호자 전화 응대 및 역학조사, 행정업무 지원

2. 의학도서관의 변화와 도전

코로나19는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예측불가의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고 있으며, 도서관의 일상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미래의 모습에서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본과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과 기능에 충실한 도서관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으며, 미래 사회를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기본 4요소인 자료, 시설, 이용자(서비스), 사서의 적정성을 기반으로 도서관 5법칙에 - 랭가나단(1), 크리포드와 고어만(2,3)- 맞추어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변화되는 사회 모습에서 도서관은 그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도서관은 이용을 위한 것이고, 도서관은 만인을 위한 것이며, 독자에게 필요한 모든 도서관을 제공하고, 도서관은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해야 하며,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는 랭가나단의 5법칙과 이를 현대적, 미래의 비전을 담은 크리포드와 고어만의 신도서관학 5법칙의 “도서관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모든 형태를 도서관 자료로 고려하고, 도서관 서비스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수호하고, 과거를 명예롭게 여기고 미래를 창조하는 것”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 도서관 자료 - 경계의 파괴, 무한 확장

1) 도서관 자료 ‘지식을 전달하는 모든 형태’

도서관은 도서만을 소장, 대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의학도서관은 과거 책자학술지 중심의 장서구성이 전자형태로 변경,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기간에도 자료 이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학도서관 자료 구입 예산의 90%이상은 전자저널, DB, 전자책, 동영상 등 전자자원의 구독(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학도서관의 기능은 전자중심의 자료의 수집, 제공에서 새로운 미디어 공간을 통한 자료 제작에 따른 생산, 관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Studio 또는 AR/VR 공간에서 제작, 관리되는 학술 미디어 자료는 도서관 자료의 이용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수집, 관리, 제공, 생산, 선정하는 정보의 사이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자료의 보존과 자유로운 접근

도서관은 지적산물의 수집과 보존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고 미래 발전을 위한 지식의 보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장서 관리를 통해 도서관 자료는 장서의 가치를 높혀 보존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소장된 도서관의 자료는 연구와 교육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미소장 자료는 원문복사나 상호대차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 - 최첨단의 성장가능한 학습공간, 사회적 돌봄 공간

1) 학습 공간(Learning Commons) 확대

코로나19 기간 의학도서관은 자료 이용 및 효율적인 열람 공간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료실 및 열람실의 이용이 제한될수록 학생들은 도서관 시설 이용 확대에 대한 학습권 요청과 공공기능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에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조한혜정 교수님이 언급하신 '사회적 돌봄 공간' 기능을 도서관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인류를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정보 이용 및 학습 공간의 안전지대이어야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새로운 시대에 도서관은 정보 사각지대 없이 자료 및 열람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순한

공부방의 열람공간이 아닌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성장가능한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2) 서고 및 학습 환경의 변화

의학도서관은 성장가능한 학습공간 확보를 위해서 서고에 대한 공간적 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도서관 내의 서고 공간을 줄이고 대신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 자유롭게 소통, 열람할 수 있는 오픈 형태의 학습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의학교육에 맞춰 협업 및 능동적 참여 공간을 위한 스터디룸 같은 공간을 제공하거나 전시, 체험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고 공간은 보존서고나 공동보존서고를 통해 별도의 공간으로 확보하여 자료를 이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3) 최첨단 기술과 트렌디한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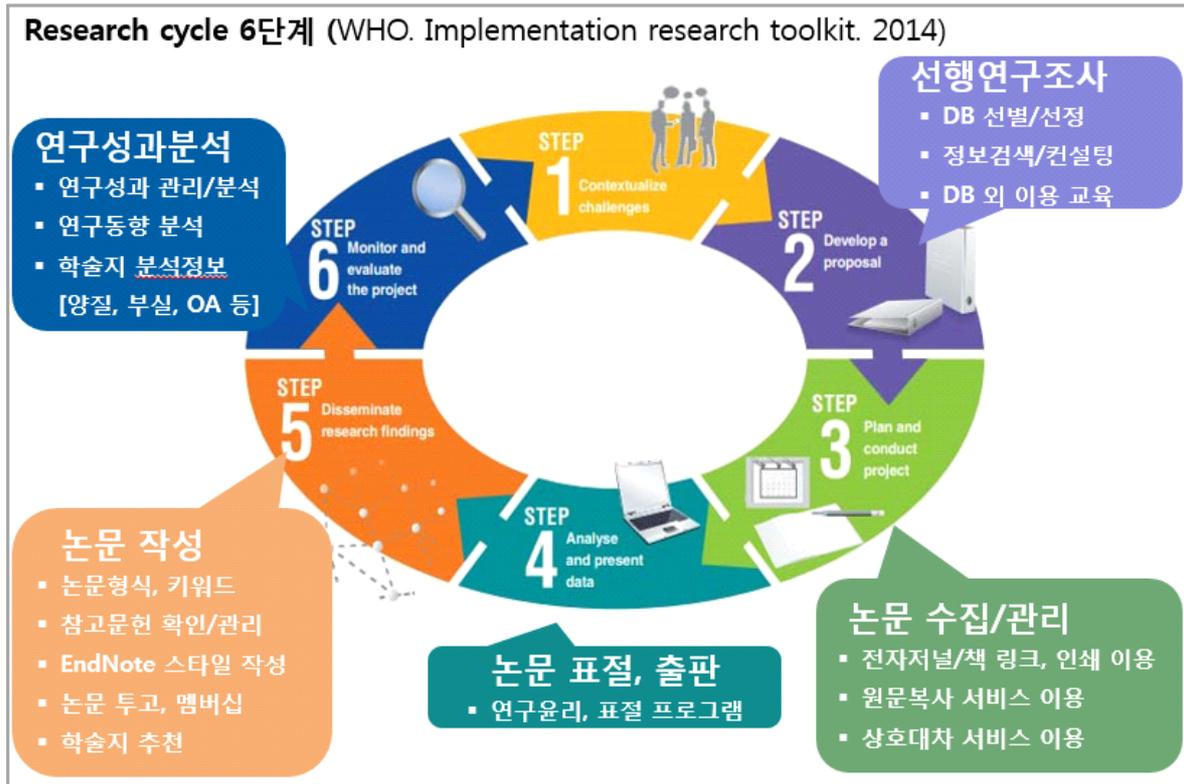
의학도서관은 사회 및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며, 이를 빠르게 적용,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학도서관은 최신의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빠른 인터넷 제공,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의학도서관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된 환경을 통해 이용자들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입니다.

다. 도서관 서비스 - 연구와 함께하는 서비스

1) 연구지원서비스

의학도서관은 연구의 사이클에 맞추어 자료를 수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 각 단계별로 정보검색, 이용교육, 논문작성지원, EndNote 스타일 제공, 저널추천, 연구윤리 및 표절, 학술지 분석정보 제

공, 연구성과 관리 및 분석/홍보,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 관리 등 연구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교육 넘어 메이커스페이스 활용

의학 교육자료는 다양한 임상사례와 첨단 기술의 콘텐츠로 AR/VR 자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AR/VR 자료는 경험과 실습을 결합할 수 있고, 3D printer 나 3D 스캐너를 통해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 공간으로 학생/연구자들의 창의력을 배양시키는 새로운 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1. 량가나단의 도서관의 5법칙. <http://blog.daum.net/lazyhappy/61>
2. 이용재. 2007. 마이클 고먼(Michael Gorman) : 기술맹신주의를 격파하고 도서관의 미래와 사서직의 비전을 제시. 도서관계. [cited 2017.10.27.]
〈http://www.nl.go.kr/pds/research_data/text/newsletter/20070102/070102libray_person.htm〉
3. Crawford W, Gorman M.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 ALA Editions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5. [Accessed August 19, 2020.] 〈<https://search.ebscohost.com/login.aspx?direct=true&db=nlebk&AN=48160&lang=ko&site=ehost-live>〉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